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

The Changes on Marital Communica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부산여자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이 기 숙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Women's University

Prof. : Lee Gee Sook

목 차

I. 서론	3. 자료검토 및 분석
1. 연구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4. 조사대상자의 성격
2. 관계문헌 연구	III. 연구결과 및 해석
3. 연구문제 서술	1. 연구문제 1의 해석
4. 주요용어 정의	2. 연구문제 2의 해석
II. 연구방법	3. 연구문제 3의 해석
1. 연구설계	IV. 결론 및 논의
2. 자료수집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wives communicate differently over the family life cycle(FLC), and whether their communication contents and frequencies are differently over the FLC.

Marital communication scales are composed of six subfactors such as The selectivity of channel (SC), Channel direction(CD), Communication style(CS), Comprehension of nonverbal communication(CNC), Communication contents and frequencies(CCF) and Olson's marital communication(LCQ). The number of the subjects are 582, who are living in Pusan in 1987 and they divided into six stages family life cycle ; The newly married(FLC 1), The family with preschoolers(FLC 2), The family with schoolages(FLC 3), The family with teenagers(FLC 4), The family with launching children(FLC 5) and The postparenthood(FLC 6).

*이 연구는 1987년도 문교부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This study is surveyed by Frequencies and Mean score from six subfactors and tested by chi-square test and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are a few significant differences in CS and CNC by FLC. The wives from FLC 1 and FLC 2 use the most open communication style and them from FLC 5 use the most closed style. There are revealed that comprehension of nonverbal communication is the highest on FLC 2, but on FLC 1 it is the lowest.

2)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CCF. Children, Wive's life, Husband's life, Affection and sex and Empathy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ver the FLC. Regardless of FLC, there are concluded that Children, Wive's and husband's life and Economy management are the most frequent communicative cont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needs to be further investigation on Olson's marital communication scale for comparing another country with ours and on the training and programs for couple's skillful communication ability.

I. 서 론

1. 연구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한국가정은 산업화과정의 급진전으로 가족형태나 기능면에서 옛것과 새로운 것이 양립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가족원의 가치관의 차이, 부부 및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세대와 결혼한 자녀세대의 차이, 남·여의 차이 등으로 가족문제는 표출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부부단위의 가족문제는 핵가족화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연구자들의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부부관계의 안정성 여부는 가족집단의 안정성을 결정하며 부부상호만족도의 정도는 가정생활 전체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혹은 적응성), 부부의 역할, 부부갈등에서 시작되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부부폭력, 부부커뮤니케이션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예리하게 표출되고 있는 많은 개인적 가정적문제의 진단이 부부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위의 부부역할, 만족도,

커뮤니케이션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쪽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배경에서 본 논문은 “가족관계 연구 등에서 지적되는 부부만족도, 역할, 갈등을 강화시키기도 혹은 약화시키기도 하는 가장 큰 매체는 커뮤니케이션이다”(송성자 1985, 2; Thomas 1977, 1)는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주제를 커뮤니케이션에 두고 현재 한국도시가정의 부부생활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분석하여 부부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찾고, 둘째 부부커뮤니케이션이 가족의 발달단계(가족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찾아내어 각 가족단계별로 부각되는 커뮤니케이션특성을 고찰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도시부부 커뮤니케이션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부부커뮤니케이션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2. 관계문헌 연구

우리나라의 부부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이근후와 이동원(1973)의 연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서울시내 거주주부 250명을 대상으로 그들 부부의 대화시간·커뮤니케이션 방

법·대화분위기·대화형태·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인의 태도·대화내용·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인의 태도·대화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그뒤 박경자(1981), 김정숙(1982), 이정순(1982), 김은숙(1983), 김쟁산(1983), 조혜정(1983) 이기영(1984), 송성자(1985), 송말희(1986)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박경자(1981, 73)는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으로 사용하였다) 정도¹⁾는 가족환경변인인 연령·교육수준·자녀수·가족형태·결혼생활 기간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교육 수강주부집단을 실험집단으로하여 비 수강집단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부부의사소통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숙(1982, 17~32)은 의사소통의 필요성('매우 필요하다'에서 '별로 필요없다'까지)·자기감정 전달욕구·남의 감정을 수용하려는 욕구·대화의 목적에 대한 인식·어떠한 단계(계획에서 평가까지)에서 의사소통은 하는가·의사소통 분위기·대화장소·가정생활내용별 의사소통정도·의사소통의 문제점 등을 강릉지역 주부 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결혼연수·학력·소득·가족형태 별로 나누어 빈도조사를 하였다.

이정순(1982)도 연령·결혼연수·교육수준·생활비·대화형태·대화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부부커뮤니케이션 일치도와 이해도²⁾를 조사하여 F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화시간만이 부인집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일치도에 차이가 나타나 서로 얘기를 잘하는 부부일수록, 대화시간이 3~5시간 미만일

수록 부부커뮤니케이션 일치도가 높음이 입증되었다.

김은숙(1983, 43)은 가족생활주기(6단계)에 따른 부부의사소통도³⁾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있는 신혼기가족의 의사소통도가 가장 높다가, 그 다음단계에서 부터는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6단계가 가장 낮았으며 6단계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김쟁산(1983, 77)은 부부커뮤니케이션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결혼만족도에 영향주는 7개요인 중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변량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조사대상 부인의 커뮤니케이션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주는 변인은 남편의 응답태도이었다.

조혜정(1983, 44)은 부부의사소통 효율성⁵⁾을 가정환경(연령·학력·직업·주부의 취업유무·결혼만족도·자녀수·결혼생활연수·의사결정형태·결혼전 부모와의 대화형태·가족생활주기·사회경제적 지위·가족형태) 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가정의 물리적 변인보다 결혼만족도·의사결정 등과 같은 가정의 심리적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효율성을 높은집단과 낮은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가정생활상의 의사소통차이를 밝힌 결과 효율성이 높은 집단은 가정생활 거의 모두를 대화내용으로 삼았다.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의 질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기영(1984, 46)의 논문에 따르면, 생활의 질을 높게 인지한 주부집단이 낮게 인지한 주부집단보다 남편과 자주 대화를 하며, 고민을 남편과 항상 의

주 1) 박 경자가 사용한 상호의사소통 척도는 牛島의 행복도 측정척도,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문항으로 되어있다(박경자 1981, 22).

주 2) 커뮤니케이션일치도는 Locke(1981)와 Kimmel(1974)의 결혼행복도 검사 중 7문항을 발췌 수정하였고, 커뮤니케이션이해도는 Powers & Hutchinson(1979)의 PRSCA(Personal report of spouse communication apprehension)을 번역 수정 사용하였다.(이정순 1982, 24-25)

주 3) 의사소통질문지는 전문가의 시사, 지도, 문헌등을 통해 연구자가 작성하였다(김은숙, 1983, 32).

주 4)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관계조사는 이근후(1973)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토대로 하여 항목을 더 첨가해서 작성하였다(김쟁산 1983, 27).

주 5) Bienvenu(1970)의 The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15문항을 선정하여 수정·작성하였으며,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하루대화시간·대화정도·대화시기·대화만족도·대화시 태도·대화형태·집안일 대화정도·직장일 대화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조혜정 1983, 13).

논한다고 하였다.

송말희(1983, 43)는 결혼만족도와 커뮤니케이션 이해도⁶⁾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커뮤니케이션 이해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만족도 점수도 높아져 결혼만족도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한국인의 의사소통유형을 찾아내고 가족문제에 관계있는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밝힌 송성자(198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남편의 권위주의적 커뮤니케이션과 자발적 커뮤니케이션태도, 부인의 자기희생적 커뮤니케이션태도가 가족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외국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부부대화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타내는 대화태도의 차이에 관한 Komarovsky(1964, 198)의 연구가 있다. 그는 남편들은 부인들 보다 적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의 말에 그만큼 귀기울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편들은 의사소통시 송신자, 수신자의 양측면에서 다능력이 부족한 반면, 부인들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고 하면서도 그들 역시 실제 부부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남편의 별로 흥미있어 하지 않는 분야에서 말이 많아 실제 부인들이 얻는 커뮤니케이션효과는 적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대화는 특히 적절한 자녀 출산계획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 만족도와 커뮤니케이션과의 관련성이다. 부부관계 진전과 만족에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밝혀졌으며(Bienvenu 1970 ; Gilbert 1976 ; Powers 1979, 89) 부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불만족한 부부들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즉 불만족한 부부들에게서는 두드러지게 상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Markman 1979, 661), 특히 행복한 부부일

수록 부부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으며, 언어의 선택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상대방의 의사를 인정하며 개방적이다. 또한 자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더 많이 표시하며, 부부간에 이야기할 주제를 넓게 갖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인정하며 개방적이다. 또한 자기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표현하며 비언어적 기교를 보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Navran 1967, 173~184).

Khan(1971 ; In 이정순 1982, 10)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있는 관계인지, 남편의 태도가 전체적인지 아닌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Hawkins(1977, 479-490)는 배우자와의 친밀도정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다르며 의견일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부관계가 만족한, 불만족한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연구한 연구들에 이어 나타난 연구문제는 부부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Chilman(1975, 157)은 부부나 부모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기피케 하는 원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를 제기하는 대화방식이라고 하여 보다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Freimuth(1976, 289~298 ; In 이정순 1982, 17)는 자기노출·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신뢰감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자기노출이 적을수록, 상대의 커뮤니케이션에 신뢰감을 못느낄수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Klemer(1970, 201-214)는 부부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는 주요요소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욕구의 결여·안정성의 결여 및 선택의 결

주 6) 커뮤니케이션이해도 측정도구는 Power & Hutchinson(1979)의 PRSCA를 번역, 사용하였으며, 문항간의 Alpha값은 .79이었다(송말희 1986, 39).

역'을 지시하였다. 그는 상호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듣는 쪽이 전달자의 전달언어 이외에도 언어가 주는 의미와 감정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수신자는 자기감정을 전달하려는 욕구와 남의 감정을 수용하거나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시간·장소·대상의 적절한 선택이 되어야 하며 또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을 위한 부부커뮤니케이션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된 연구가 많은 것도 새로운 경향이다. Gurman & Kniskern(1981, 314; In 송성자 1985, 29)은 부부간의 효능적 커뮤니케이션은 결혼생활강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용한 지표로 나타났다고 하여 효능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Witkin(1983, 661)은 부부치료를 위해 커뮤니케이션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Powers(1979, 93)는 특히 자기노출·상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뢰·대화의 감소가 낮은 부부집단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 Witkin(1983, 662)은 커뮤니케이션훈련을 받은 부부는 자기노출·지지적 커뮤니케이션을 보내는 기법(assertive statement)·대화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positive feedback)·공감적 메시지(empathic message)작성 등에서 그 기술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가족발달단계에 따라 부부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주기(FLC)를 독립변수로 하여 부부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본 김은숙(1983)의 연구가 있다. 그녀에 따르면 가족주기 6단계(신혼기·영아기 가족·학령전기가족·학령기·청소년기·성년기)에 따라 부부커뮤니케이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신혼기가 가장 높고 2단계 영아기가족부터 4단계 학령기가족까지

는 점차 낮아지다가 청소년기에 상승하고(신혼기 보다는 낮음) 마지막 단계인 성년기에 다시 내려가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조혜정(1983, 2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주기(8단계사용)에 따라 부부커뮤니케이션효율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주기' 외에 결혼기간을 변수로 하여 부부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한 박경자(1981, 31), 송말희(1986, 41), 이정우와 안동선(1983)의 연구들에 따르면, 결혼연수가 길어질수록 부부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정도가 많으며(이정우 1983), 결혼기간 5년이하 부부의 의사소통상호작용이 가장 많고, 결혼기간 11년~15년 부부의 상호작용이 가장 낮았다(송말희 1986, 41). 박경자(1982), 이정순(1982)은 부부커뮤니케이션은 결혼연수에 거의 영향받지 않는다고 하여 결혼연수나 연령에 따라 부부커뮤니케이션에는 일관된 연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들은 가족주기단계설정의 불일치와 부부커뮤니케이션 척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문제 서술

이와같은 관련문헌 분석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상태는 어떠한가?

1-1. 채널선택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가?

1-2. 채널방향성은 어떤가?

1-3. 대화유형은 어떤가?

1-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해도는 어떤가?

1-5. 대화종류 및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

1-6. 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주기단계에 따라 부부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3. 가족주기단계에 따라 대화종류 및 빈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주요용어 정의

부부커뮤니케이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용어들을 사용하였으며 그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부부 :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본 연구에서는 부인들로 부터 직접받은 설문지자료의 결과를 도시부부 커뮤니케이션 내용으로 한다.

2) 채널선택자율성(the selectivity of channel : SC) : 원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부부들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뜻한다.

3) 채널방향성(channel direction : CD) : 서로의 대화를 보내고 받는 통로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뜻한다. 다른 연구(이정순 1982, 31)에서는 '대화형태'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방향성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는 상호방향성과, 남편이 주로 이야기하는 남편송신형, 부인이 주로 이야기하는 부인송신형, 그리고 상호무대화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4) 대화유형(communication style : CS) :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이 개방적(open)인 가 폐쇄적(closed)인 가를 뜻한다.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상대의 경험들에 관심이 크며 대화를 잘 나누고 상호존중하며 개방적인 대화유형을 가진다고 보면 개방적대화유형으로, 그렇지 못하면 폐쇄적 대화유형으로 본다.

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해도(comprehension of nonverbal communication : CNC) :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정·몸짓 등으로 상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반응을 파악하는 능력.

6) 대화종류 및 빈도(communication contents and frequencies : CCF) : 13가지로 분류된 가정생활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부부가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며, 각 내용별 대화빈도는 어느정

도인 가를 뜻한다.

7) 커뮤니케이션의 질적수준(level of communication qualities : LCQ) : 부부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며, 상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해 그 자신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형태를 송신자로서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정도.

8) 가족주기단계(stages of family life cycle : FLC)⁷⁾ : Duvall(1985, 26)의 가족주기 8단계를 한국사회의 자녀교육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제1단계 신혼기가족(Newly married : 무자녀로 결혼기간 7년이내부부), 제2단계 미취학아동기가족(Family with preschoolers : 첫자녀 출생에서 학령전인 가정), 제3단계 학동기가족(Family with Schoolages : 첫자녀가 국민학생인 가정), 제4단계 중·고등학교기가족(Family with teenages : 첫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가정), 제5단계 자녀독립기(Family with launching children : 첫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및 이상의 교육기간에 속하는 연령이며 미혼인 가정), 제6단계 탈부모기(Postparenthood : 첫자녀가 결혼한 가정 및 그 이상의 가정)로 규정하였다(이기숙 1984, 606).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관련문헌 분석을 통해 볼 때 부부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외형적 양적 상태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질적상태의 분석방법으로 볼 수 있다.

양적분석이란 실제 부부간의 대화시간량·대화내용수·대화빈도 등을 조사해서 대화내용이 어느 정도 풍부한 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것으로 부부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분

주 7)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주기 6단계는 Duvall의 2단계와 3단계를 합쳐 미취학아동기로, Duvall이 7단계와 8단계를 합쳐 탈부모기로 하여 작성되었다. 그 이유는 Duvall의 2단계(영아기가족 : 첫자녀 출생에서 30개월까지)와 3단계(미취학아동기가족 : 첫자녀 30개월에서 6세까지)를 구별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7단계(진수기가족 : 자녀의 독립에서 부부의 정년퇴직까지)와 8단계의 구별이 실제 가정생활에서 확실히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석방법을 뜻한다. 이때에는 양적속성이 우수한 부부커뮤니케이션(질적속성)을 예측한다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부부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은 반드시 양적수준과 일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또다른 가정에서 보면 양적수준과 질적수준은 다르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석함은 대단히 흥미로울 것이다. 그러나 부부커뮤니케이션 질적상태를 설문지로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많은 한계를 지닌 듯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Olson의 척도를 번역·사용하여 질적수준을 측정하였지만, 양적수준과 질적수준의 관계는 차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부부의 외현적·양적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분석키위해서 채널선택성·

채널방향성·대화유형·비언어적 이해도·대화내용 및 빈도 등을 조사하였고, 질적수준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LCQ)이란 조작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1, 그림 2와 같은 연구설계로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가 제기된다.

연구문제 1: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커뮤니케이션을 6가지 하위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즉 채널선택자율성(SC)·채널방향성(CD)·대화유형(CS)·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해도(CNC)·대화의 종류 및 빈도(CCF)·커뮤니케이션의 질적수준(LCQ)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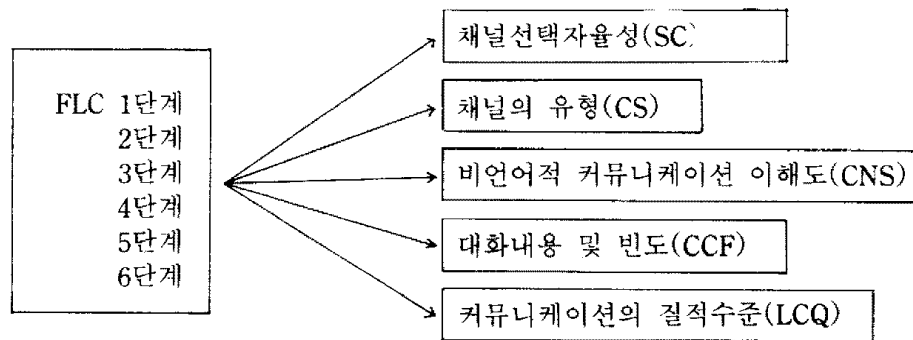


그림 1. 가족주기별 부부커뮤니케이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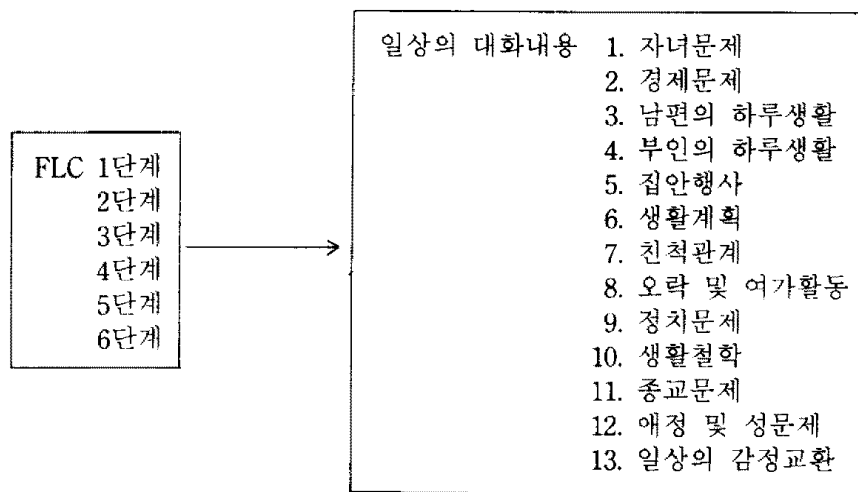


그림 2. 가족주기별 일상의 대화내용 및 빈도 분석.

연구문제 2: 가족주기단계에 따라 부부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주기별로 부부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한다.

연구문제 3: 가족주기단계에 따라 가정생활내용상 의견교환 빈도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의 대화종류를 13가지로 나누고, 각 대화에 대해 부부가 어느정도 빈번히 대화나누는가를 측정해 이를 가족주기별로 비교한다.

2. 자료수집

본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과 연구문제에 관련되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정보문항에는 조사대상자(주부)의 연령·자녀수·학력·결혼기간·가정의 월평균소득·취업유무·배우자직업·가족주기·결혼상태⁸⁾·배우자와의 관계⁹⁾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문제와 관련되는 문항으로는, ① 채널선택 자율성(SC)을 묻는 두 문항(서열척도)은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부부는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집안이든 밖이든)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이 두 문항간의 Spearman's Rho 값은 0.6448($P < .001$)로 나타났으며, 이근후(1973, 286)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② 채널의 방향성(CD)를 묻는 문항은 서로 이야기를 잘 안한다. 부인이 주로 이야기하고 남편이 듣는 편이다. 남편이 주로 이야기하고 부인이 듣는 편이다. 둘다 얘기를 잘한다고 나누어 답하도록 하였으며 명목척도였다. ③ 대화유형(CS)을 묻는 문항은 Hawkins(1977, 479-490)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문항 중 '우리부부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상대의 경험을 상호존중하는 편이다'와 '우리부부는 각자의 하루생활에 관심이

크며 대화를 잘 나눈다'의 두 문항(서열척도)을 1점(대단히 그렇지 않다)에서 5점(대단히 그러하다)까지 평정척도로 구하였다. 이 두 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상대의 경험들에 대해 관심이 크며, 대화를 잘 나누고, 상호존중하는 편이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부라고 보고, 두 문항에서 ④와 ⑤에 응답한 자를 '개방형', ①과 ②에 응답한 자를 '폐쇄형'으로 분류하였다(Hawkins 1980, 480). 그리고 두 문항간의 Rho 상관계수값은 0.5160($P < .001$)이었다. ④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해도(CNC)를 묻는 문항(서열척도)은 김정산(1983)의 연구에서 두 문항을 선택하였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 잘되는지의 여부와 표정과 몸짓만 보아도 말하려는 내용을 알 수 있는가의 여부를 5점 평정척도로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언어적매체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두 문항간의 Rho값은 0.4046($P < .001$)이었다. ⑤ 대화의 종류 및 빈도(CCF)를 묻는 문항은 이근후(1973, 227~289)의 연구에서 12가지와 Glick(1980, 92)의 일상의 감정교환정도를 묻는 문항 한가지 등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을 빈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거의 매일한다(5점)'에서 '거의 안한다(1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나누었으며 범위는 13점~65점이다. 이 문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화의 종류가 많고 자주 의사를 나눈다고 해석한다. ⑥ 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LCQ)을 묻는 문항은 Olson(1982, 74)의 ENRICH¹⁰⁾에서 10문항을 선정·번역·사용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구분되어 10문항 전체점수범위는 10점~50점이다. 이 문항

주 8) 결혼상태는 초혼·재혼·기타로 나누어 표시토록 하였음.

주 9) 배우자와의 관계는 ① 함께 살고 있다. ② 별거·이혼·사망 등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나누어 표하도록 하여 ① 항목자만 사용하는 식별적 정보문항(identification information item)으로 사용하였다.

주 10) ENRICH(Enriching and Nu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는 부부관계 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2개의 하위요소로 되어있다.

들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는 현재 그들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에 편안함을 느끼며 상대(남편)의 커뮤니케이션방식을 알고 있으며 남편에 대해 자신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잘 안다고 해석한다

2) 조사대상자 선정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1987년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산시 거주 주부를 가족주기별로 의도적 유층표집하여 얻어졌다.

가족주기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약 100부에서 180부정도를(총 800부) 본교 가정관리학과 1, 2, 3년 학생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각 학교를 방문하여 주부에게 전달되도록 한 뒤 봉해서 반환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680부가 회수되고 이 중 응답이 불량하거나(89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비동거주부(9부)를 제외시켜 582부를 얻어 통계처리하였다(800부에 대해서는 72.75%, 680부에 대해서는 85.59%이다).

3. 자료검토 및 분석방법

본 논문의 자료검토 및 분석방법은 SPSS의 하위 program을 사용했다.

연구문제 1을 위해서는 부부커뮤니케이션을 6개의 하위문제로 나누어 FREQUENCY하였다.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비모수치 상호상관계수법(NONPAR CORR)을 사용하여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한 결과 Rho값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므로¹¹⁾ SC, CS, CNC를 등간척도로 변경시킨 뒤 FLC를 독립변수로 하여 BREAKDOWN시켰다. 또 LCQ에서 Olson의 문항을 번역사용하였으므로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를 RELIABILITY를 사용 Alpha값을 얻었다.

연구문제 3을 위해서는 FLC를 독립변수로 하여 가정생활대화종류 및 빈도(CCF)를 CROSSTAB시켜 구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성격

조사대상자 582명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97.9%는 현재의 결혼상태가 초혼이었고, 가족주기별로 의도표집한 대상이였으므로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분포되어있다. 또 직업을 가진 주부가 31.8%였고, 평균학력은 40.5%가 고등학교졸업자이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문제 1의 해석

1-1. 채널선택자율성(SC)

표 2에 의하면 주부 75%가 자신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59.2%가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하여 부부의 물리적 채널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이근후(1973)의 연구에서 응답주부의 70%가 '부부간에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여, 부부는 상호의사소통의 통로를 심리적으로 띄워놓고 싶어한다는 연구에 일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부부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물리적 여건(분위기·시간·장소)은 비교적 자율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2. 채널의 방향성(CD)

표 3에 의하면 본 연구대상인 부산시 거주 주부 집단의 42.4%가 '둘다 얘기는 잘한다'고 응답하여, 서울시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순(1982, 31)의 연구결과 65.7%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3을 보고 그림 3에 의하면 부부상호방향성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이 부인송신형으로 전체적으로 부부커뮤니케이션의 통로(채널)은 부인쪽에서 남편쪽으로 흐름이(방향지어져 있음)

주11) 본 논문은 II-2-(1)측정도구작성 참고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82)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원수(%)
결혼상태	1. 초혼	570(97.9)
	2. 재혼이심	9(1.5)
	3. 무응답	3(0.5)
연령	1. 20~29세	100(17.3)
	2. 30~39세	207(35.7)
	3. 40~49세	215(37.2)
	4. 50세이상	57(9.8)
	9. 무응답	3(0.5)
	평균	38.38세(±8.27)
결혼기간	평균	15.19년(±9.06)
가족주기	1. 신혼부부(무자녀)	85(14.6)
	2. 첫째자녀가 미취학이다	73(12.5)
	3. 첫째자녀가 국민학생이다	67(11.5)
	4. 첫째자녀가 중·고등학생이다	166(28.5)
	5. 첫째자녀가 고등학교 이상이나 미혼이다	137(23.5)
	6. 첫째자녀가 결혼하였다	54(9.3)
학력	1. 국민학교 졸업	59(10.1)
	2. 중학교 졸업	127(21.8)
	3. 고등학교 졸업	236(40.5)
	4. 초급대 혹은 전문대학 졸업	54(9.3)
	5. 대학교 졸업	102(17.5)
	6. 대학원 수료 및 이상	4(0.7)
직업*	1. 없다	389(66.8)
	2. 있다	185(31.8)
	3. 무응답	8(1.4)
가계소득	1. 30만원이하	47(8.1)
	2. 31~49만원	109(18.7)
	3. 50~69만원	145(24.9)
	4. 70~89만원	77(13.2)
	5. 90~109만원	152(26.1)
	6. 110만원이상	52(8.9)
배우자의 직업	1. 정해진 직업이 없다	33(5.7)
	2. 수위·청소부·점원·일일노동자. 이에 준하는 직업	35(6.0)
	3. 가게주인·외판원·중개인·상인. 이에 준하는 직업	169(29.0)
	4. 평교사·6급이하공무원·위관급군인·일반사원. 이에 준하는 직업	179(30.8)
	5. 교감이상·5급이상공무원·영관급군인·대기업과장. 이에 준하는 직업	132(22.9)
	6. 교수·의사·법조인·예술가·대기업사장. 이에 준하는 직업	34(5.8)

* 직업의 종류는 "배우자의 직업" 종류와 같게 조사하였으나, 직업이 독립변수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표에서는 직업유무로 표시한다.

표 2. 채널선택 사용성

분 항	응답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반반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평균)
1. 귀하의 가정분위기는 서로가 원한다면 언제나 대화 할 수 있는 분위가 됩니까?	(인원수) (%)	7 1.2	21 3.6	115 19.8	357 61.3	82 14.1	3.84± 0.75
2. 우리부부는 서로가 원한다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인원수) (%)	5 0.9	36 6.2	196 33.7	279 47.9	66 11.3	3.63± 0.80

표 3. 채널의 방향성

문 항	응답	인원수(%)
우리 부부는	1. 서로얘기를 잘 안한다	89(15.3)
	2. 부인이 주로 얘기하고 남편은 듣는 편이다.	176(30.2)
	3. 남편이 주로 얘기하고 부인은 듣는 편이다.	70(12.0)
	4. 둘 다 얘기를 잘 한다	247(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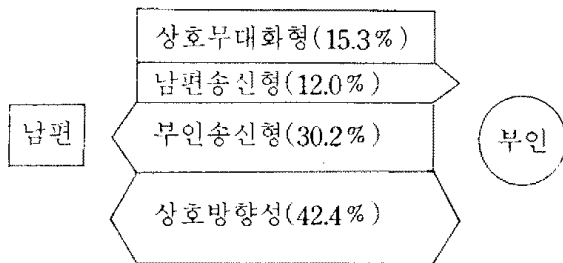


그림 3.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의 채널방향성.

확실하다.

1-3. 대화유형(CS)

대화유형에 관하여 Hawkins(1977, 39)는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의 두 차원으로 분류시킨 뒤 다시 높은 자기노출과 낮은 자기노출로 나누었다. 즉 대화유형분류의 기준은 쌍방이 얼마나 서로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과 얼마나 상대에 대해 자기를 노출시키는가 이다. 따라서 상대의 경험에 관심을 보내며 상호관심을 교환한다는 것은 자신과 상대의 실체(realities)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부부상호

평등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Norton(1978, 99)과 Honeycutt(1982, 397)은 '대화유형'을 언어 또는 다른방법으로 송·수신자 간에 정확한 의미가 전해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호작용방법으로 정의하고, 대화유형을 10가지로 나누어 행복한 부부일수록 우애적(friendly)이고 인상적(impressive)이며 정확하고(precise) 표현적인(expressive)속성이 높고, 불행한 부부일수록 최저수준의 편안함과 우호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외에 Gibb(1961, 141), Hawkins(1977, 479)등은 대화유형을 방어적 유형(defensive style), 지지적 유형(supportable style)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wkins(1980)의 대화유형적도 중 두 문항을 택해 질문한 뒤 두문항 모두 ④와 ⑤를 응답한 자는 '개방형(the open style)'으로 나눈 결과, 주부 30.1%가 개방형에 속하고, 4.0%만이 폐쇄형으로 나타나 비교적 조사대상 주부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대의 경험들을 상호존중·교환하며 각자의 하루생활을 중심으로 대화를 잘 나눈다고 볼 수 있다(연구문제 3 참조).

1-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해도(CNC)

조사대상 주부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매체이해도 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CNC를 채는 두 문항에서 모두 ④와 ⑤에 응답한 자를 매체이해가 높은 집단으로, ①과 ②에 응답한 자를 낮은 집단으로 본 결과, 전자에 182명(31.3%)이 후자에 17명(2.9%)이 속해졌다.

표 4. 대화유형별 커뮤니케이션 상태

문항	응답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반반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평균)
1. 우리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대의 경험들을 상호 존중하는 편이다	(인원수) (%)	9 1.5	33 5.7	272 46.7	231 39.7	37 6.4	3.44± 0.76
2. 우리 부부는 각자의 하루 생활에 관심이 크며 대화를 잘 나눈다	(인원수) (%)	5 0.9	56 9.6	238 40.9	240 41.2	43 7.4	3.45± 0.80

표 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해도

문항	응답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반반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평균)
1. 부인께서는 남편과 얘기하지 않더라도~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인원수) (%)	4 0.7	54 9.3	159 27.3	329 56.5	32 5.5	3.57± 0.79
2. 우리 부부는 말을 안고서도 의사소통이 잘 된다	(인원수) (%)	6 1.0	44 7.6	300 51.5	213 36.6	15 2.6	3.32± 0.70

표 6. 대화내용 및 빈도

대화내용	1. 거의 안한다	2. 한달에 한번	3. 일주일 에 한번	4. 일주일 에 두세번	5. 거의 매일	(평균)*
1. 자녀문제	6.0	6.0	12.8	24.1	51.1	4.08±1.19
2. 경제문제	5.6	17.6	23.3	28.9	24.5	3.50±1.20
3. 남편생활	8.2	5.3	14.3	25.8	43.5	3.94±1.26
4. 부인생활	8.2	6.5	12.0	23.5	46.4	3.96±1.28
5. 집안행사	10.1	40.5	25.6	16.9	6.9	2.70±1.08
6. 생활계획	10.1	37.2	22.2	19.2	11.2	2.84±1.18
7. 친척관계	16.6	46.1	23.0	11.4	2.9	2.38±0.99
8. 오락·여가활동	26.1	33.3	26.8	10.8	2.9	2.31±1.06
9. 정치문제	33.3	19.1	18.0	18.0	11.7	2.56±1.41
10. 생활철학	35.4	26.3	21.2	11.0	6.1	2.26±1.22
11. 종교문제	48.4	21.9	10.3	12.1	7.4	2.08±1.32
12. 애정·성문제	27.6	22.9	26.1	16.6	6.8	2.52±1.24
13. 일상의 감정교환	15.4	19.0	17.4	21.4	26.8	3.25±1.43

*: 응답반응 1~5를 서열척도라 인정하여 대화내용별로 평균낸 값으로 5점 만점임.
 고딕: 각 대화종류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나타낸 응답

Brill(1978, 36)은 커뮤니케이션은 내용적 측면(content levels of communication)과 관계측면(relationship levels of communication)으로 나누어 볼 때 언어적 의사소통은 내용측면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관계체계를 다루는 것으로 했으며, 정상인의 커뮤니케이션 중 1/3이 언어적 수준에서 전달되고 2/3는 비언어적 수준에서 전달되며, 일반적으로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비언어 매체 이해도는 부부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Navran(1967, 173~184)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부부간에 정확할수록 부부행복도가 높으며, Lewis & Spanier (1979 : 송말희 1986, 37)는 이는 결혼생활의 질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1-5. 대화의 내용 및 빈도(CCF)

표 6에서 사용된 대화의 내용 및 빈도는 생활의 전반에 관한 대화의 내용을 13가지로 분류시켜서 응답케 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화의 종류가 많고 빈도가 잦은 것이다.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빈도점수가 높은 것은 '자녀문제'였고 그다음이 '부인의 하루생활', 세번째가 남편의 하루생활, 네째 경제문제 그리고 일상의 감정교환 순(順)이었다. 이는 이근후(1977, 11 : 1순위 자녀문제), 이기영(1984, 44 : 1순위 자녀문제), 조혜정(1983, 36 : 1순위 자녀문제), Glick(1980, 92 : 자녀문제)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같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 '자녀문제'가 1순위로 나타나는 것은 자녀야 말로 부부공유(共有)의 대상임이 분명하며, 이를 이근후(1973, 283)의 지적처럼 '자녀 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이지 부부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이 못된다'라고는 필자는 보지 않는다. 단지 커뮤니케이션이 자녀문제 자체에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 부부자신들의 생활까지 언급되는 대화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분석결과 대화의 빈도가 가장 낮은 것들

로는 생활철학, 오락 및 여가활동, 애정 및 성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Navran(1967, 173-184)은 행복한 부부일수록 상대의 생활,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많다고 하여 대화의 풍부성이 결혼생활의 질을 나타내 주는 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본 논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질적수준과도 연관된다.

1-6. 커뮤니케이션의 질적수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질적수준 척도는 수신자요소, 송신자요소, 채널요소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는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편안함을 느끼며 상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way)을 알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부부이다.

연구분석의 결과는 표 7에서와 같이 $32.23(\pm 6.289)$ 으로 나타났고 이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미국에서의 연구결과(Olson, 1982)인 $34.10(\pm 6.94)$ ¹²⁾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인정되었다($F=10.85, sig=0.000$).

미국조사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한국가정의 부부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그 질적수준이 낮아서라기 보다는 문화적 차이와 척도 번역상의 제한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10문항 간의 내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한 Alpha값은 0.4797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부커뮤니케이션이 질적수준이 낮다고 단정짓기 보다는 더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

표 7. 부부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

문 항	평균 점 수
수신자요소(5문항)	16.28±3.34
송신자요소(4문항)	12.74±2.64
채널요소(1문항)	3.22±0.99
전체(10문항)	32.22±6.29

주12) 1982년 미국에서 조사연구결과 남자 $34.90(\pm 6.05)$, 여자 $34.10(\pm 6.94)$ 였다. 본 논문의 조사 대상자는 주부에 한정되므로 부인의 값만 비교하였다.

표 8. 가족주기별로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주기(인원수)	연령	자녀수	결혼기간	학력	생활수준
FLC 1(85)	25.94	0	1.86	4.28	11.06
2(73)	30.41	1.67	5.82	4.01	12.41
3(67)	34.85	2.26	11.49	2.92	9.16
4(66)	39.96	2.77	17.03	2.71	9.73
5(137)	45.11	3.55	22.42	2.54	9.63
6(54)	51.19	4.39	29.94	2.22	9.11
전체(582)	38.38±3.07	2.51±0.77	15.19±3.18	3.04±0.99	10.11±2.95

표 9. 가족주기별로 본 부부커뮤니케이션 요소들

요 소	FLC1	FLC2	FLC3	FLC4	FLC5	FLC6	평 균	F비(유의수준)
채널선택자율성(SC)	7.48	7.69	7.33	7.57	7.41	6.98	7.45±1.41	1.970(0.0813)
대화유형(SC)	7.19	7.23	6.84	6.99	6.49	6.74	6.89±1.37	4.466(0.0005)**
비언어적 이해도(CNC)	6.67	7.21	6.77	7.04	6.77	6.89	6.90±1.21	2.423(0.0345)*
대화내용·빈도(CCF)	39.04	39.22	35.38	36.57	36.90	37.31	37.28±9.22	2.052(0.0699)
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LCQ)	32.28	32.94	32.10	32.52	31.93	31.15	32.23±6.30	0.628(0.6782)
합 계	92.66	94.29	88.42	90.69	89.50	89.07	90.75±3.90	

* : P<.05, ** : P<.001

표 10. 부부커뮤니케이션 하위요소간의 상관관계

	SC	CS	CNC	CCF	LCQ
SC(채널선택)	1.000	0.6453	0.3494	0.3485	0.3709
CS(대화유형)		1.000	0.4392	0.3827	0.3659
CNC(비언어적)			1.000	0.2653	0.2594
CCF(대화종류)				1.000	0.2247
LCQ(질적수준)					1.000

어저 동일한 척도에 의한 미국·한국간의 비교·분석이 후일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2.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부부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자 582명의 가족주기별 인구사회학적 성격은 표 8과 같다.

위 표에 따르면 연령, 자녀수, 결혼기간은 차이가 나타남이 당연하나 학력과 SES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력의 경우, 학력과 연령과의 부적상관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계로 인식되고 생활수준의 경우(P<.001, F=16.43)에는 가족주기 단계가 1, 2단계인 가족의 부인 학력이 대단히 높은데 기인한다.

다음으로 가족주기에 따라 채널선택 자율성(SC), 대화의 유형(CS),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해도(NC), 대화내용 및 빈도(CCF), 커뮤니케이션의 질적수준(LCQ)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통계처리한 것이 표 9이다. 그리고 SC부터 LCQ까지 5변인의 상관관계표는 표 10과 같다.

위의 표에 따르면 대화유형(CS),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해도(CNC)는 가족주기에 따라 변화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널선택자율성(CS), 대화내용 및 빈도(CCF), 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LCQ)은 가족

주기단계 간의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대화유형(CS)은 가족주기 2단계가 가장 개방적이며 5단계에서 제일 낮아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대의 경험들을 상호 존중하거나 각자의 하루생활에 관심이 크다는 측면에서 다른단계보다 폐쇄적이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해도(CNC)는 가족주기 2단계가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이 4단계, 6단계, 5단계와 3단계 순이었으며 가족주기 1단계인 신혼부부기가 제일 낮았다. 이 결과는 결혼후 5년이하 부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제일 많다는 연구(송말희 1986, 41)에 일치되면서 5년이하 부부라도 신혼기보다는 자녀출산 및 유아기 부부의 상호작용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연구문제 3의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3: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대화의 내용 및 빈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처리 결과는 경제문제, 남편의 하루생활·부인의 하루생활·집안행사·생활계획·친척관계·오락 및 여가활동·정치문제·생활철학·종교문제·애정 및 성문제·일상의 감정교환 등의 대화를 얼마나 자주 나누는지의 빈도를 5점 평정척도로 잰 값을 가족주기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한 표11이다.

위 표에 따르면 자녀문제·부인의 하루생활·집안행사·생활계획·오락 및 여가활동·종교문제·애정 및 성문제·일상의 감정교환 등의 대화는 가족주기별로 대화빈도에 유의적인 차가 나타났으며, 경제문제·남편의 하루생활·친척관계·정치문제·생활철학 등의 대화빈도는 가족주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경제문제·남편의 하루생활 등은 가족주기에 관계없이 비교적 빈도가 높은 대화내용이고, 정치문제, 생활철학 등은 가족주기에 관계없이 대화빈도가 낮았다.

표 11에서 나타난 빈도별 대화내용을 보면 '거의 매일한다'에 속하는 대화내용은 가족주기 2~6단계에서 자녀문제(평균 51.1%), 1~6단계에서 남편의 하루생활(평균 44.8%), 1~6단계에서 부인의 하루생활(평균 48.0%), 1~2단계에서 일상의 감정

교환(평균 48.2%)이었고, '거의 안한다'에 반응보인 대화내용은 1단계에서 자녀문제(평균 30.4%), 1~5단계까지 집안행사(평균 40.5%)(6단계는 '한달에 한번에 한번정도'에 30.8%, '거의 안한다'에 23%보임), 1~6단계까지 종교문제(평균 48.4%)였다. '거의 안한다' '한달에 한번정도'로 대화나누는 대화내용으로는 1~6단계에서 친척관계(평균 62.7%), 1~6단계에서 정치문제(평균 52.4%), 1~6단계에서 생활철학(평균 61.7%) 2~6단계에서 오락 및 여가활동(평균 59.4%) (단 1단계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43.4%, '한달에 한번정도'는 24.1%로서 2~6단계보다는 '오락 및 여가활동'에 과해서 대화빈도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다). 4~6단계의 애정 및 성문제에서 가족주기 4단계에서는 거의 안한다(31.8%), 한달에 한번정도(20.1%)이고 5단계에서는 거의 안한다(40.6%), 한달에 한번정도(30.8%) 6단계에서는 각각 32.7%, 32.7%로 나타나, 가족발달단계 후반기에 있어서 '애정 및 성관계에 대한 부부대화 빈도는 1, 2단계에 비해 두드러지게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서너번 정도'의 빈도를 가지는 대화의 내용으로는 1~6단계의 경제문제(평균 52.2%)였다.

또 가족주기별로 살펴보면 가족주기 1단계 신혼기가족에서 가장 빈번히 대화나누는 내용은 남편의 하루생활(H)·부인의 하루생활(W)·일상의 감정교환(EM)·애정 및 성문제(LS)·경제문제(E)이었고, 가장 적게 대화나누는 것은 종교문제(R)·정치문제(PO)·생활철학(PH)에 관한 것이었다.

가족주기 2단계 미취학 아동기 가족에서 가장 빈번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인의 하루생활(W)·남편의 하루생활(H)·일상의 감정교환(EM)·경제문제(E), 자녀문제(C) 순이었고(1단계에 비해 LS대신 C가 들어감) 가장 대화를 적게 나누는 것은 1단계와 같이 종교문제(R)·생활철학(PH)·오락 및 여가활동(L), 정치문제(Po)이었으나 1단계에 비해 정치문제는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2단계의 정치문제 빈도점수가 전(全) 가족단계에서 제일 높았다.

표 11. 가족주기별로 본 대화내용 및 빈도

대화종류	응답내용*(%)	FLC1	FLC2	FLC3	FLC4	FLC5	FLC6	평균백분율*	χ^2 값(유의수준)
자녀문제(C)	1	30.4	1.4	1.6	0.0	4.4	3.8	6.0	
	2	17.7	0.0	10.9	2.4	4.4	5.7	6.0	
	3	27.5	13.7	9.4	10.9	11.9	11.3	12.8	164.89(0.0000)
	4	16.5	19.2	28.1	22.4	28.9	30.2	24.1	
	5	13.9	65.8	50.0	64.2	50.4	49.1	51.1	
	진체(%)*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점수**	2.68	3.28	4.14	4.48	4.16	4.15		
경제문제(E)	1	3.5	4.2	12.5	5.0	5.2	5.8	5.6	
	2	32.9	19.4	18.8	18.2	19.6	7.7	17.6	
	3	23.5	25.0	25.0	20.8	24.4	23.1	23.3	34.12(0.0253)
	4	21.1	29.2	23.4	31.4	30.4	36.5	28.9	
	5	18.8	22.2	20.3	24.5	30.4	26.9	24.5	
	평균점수	3.18	3.45	3.51	3.52	3.71	3.71	3.50	
남편의 하루 생활(H)	1	1.2	5.6	13.3	7.5	13.3	9.3	8.5	
	2	3.6	1.4	8.3	6.2	7.4	3.7	5.5	
	3	10.7	16.9	18.3	13.7	17.0	11.1	14.7	26.59(0.1471)
	4	31.0	25.4	26.7	29.2	22.2	24.1	26.5	
	5	53.6	50.7	33.3	43.5	40.0	51.9	44.8	
	평균점수	4.32	4.14	3.58	3.95	3.68	4.05	3.94	
부인의 하루 생활(W)	1	4.8	4.3	16.7	5.6	13.3	7.4	8.5	
	2	6.0	4.3	5.0	6.2	9.6	7.4	6.7	
	3	3.6	8.7	18.3	14.9	16.3	7.4	12.4	37.91(0.0091)
	4	28.6	24.6	15.0	23.0	24.4	31.5	24.3	
	5	57.1	58.0	45.0	50.3	36.3	46.3	48.0	
	평균점수	4.27	4.27	3.75	4.06	3.60	4.01	3.96	
집안행사(F)	1	2.4	6.9	8.3	11.9	16.4	7.7	10.1	
	2	42.4	38.9	45.0	47.5	36.6	23.1	40.5	

34.26(0.0244)

25.6

30.8

23.9

20.0

23.3

27.8

35.3

3

3

4

5

평균점수

2.70

10.1

37.2

21.6

22.2

19.2

11.2

2.84

16.6

17.0

47.2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9.1

31.9

21.4

1

2

35.3

20.9

26.6

22.6

37.91(0.0091)

10.10(0.9664)

54.70(0.0000)

29.11(0.0857)

37.91(0.0091)

10.10(0.9664)

54.70(0.0000)

29.11(0.0857)

37.91(0.0091)

10.10(0.9664)

54.70(0.0000)

29.11(0.0857)

37.91(0.0091)

16.6

46.1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0.9

26.6

22.6

16.6

46.1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0.9

26.6

22.6

16.6

46.1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0.9

26.6

22.6

16.6

46.1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0.9

26.6

22.6

16.6

46.1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0.9

26.6

22.6

16.6

46.1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0.9

26.6

22.6

16.6

46.1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0.9

26.6

22.6

16.6

46.1

23.0

11.4

2.9

2.38

26.1

33.3

26.8

10.8

2.9

2.31

33.3

28.8

19.1

25.0

18.0

18.0

11.7

2.56

35.4

26.3

29.4

41.9

29.4

20.9

26.6

22.6

16.6

46.1

23.0

11.4

2.9

2.38

3	26.2	21.7	27.3	20.0	17.8	17.6	21.2	28.61(0.0958)
4	10.7	13.0	10.9	11.0	9.3	13.7	11.0	
5	4.8	8.7	5.5	3.2	10.1	3.9	6.1	
평균점수	2.40	2.42	2.36	2.08	2.24	2.27	2.26	
총교문제(R)	1	57.8	57.7	37.9	42.1	49.6	48.1	48.4
	2	18.1	14.1	13.8	35.8	23.3	32.7	21.9
	3	10.8	7.0	20.7	10.7	8.3	5.8	10.3
	4	9.6	14.1	12.1	13.2	13.5	5.8	12.1
	5	3.6	7.0	15.5	8.2	5.3	7.7	7.4
평균점수	18.3	1.98	2.53	2.19	2.01	1.92	2.08	32.69(0.0365)
애정·성	1	6.0	16.2	26.8	31.8	40.6	32.7	27.6
문제(LS)	2	16.7	17.6	17.9	20.1	30.8	32.7	22.9
	3	17.9	32.4	26.8	32.5	21.8	23.1	26.1
	4	39.3	25.0	25.0	11.0	5.3	5.8	16.6
	5	20.2	8.8	3.6	4.5	1.5	5.8	6.8
평균점수	3.51	2.92	2.60	2.36	1.96	2.19	2.52	121.56(0.0000)
일상의 감정	1	3.5	10.1	22.0	20.3	17.2	15.4	15.4
교환(EM)	2	4.7	11.6	25.4	24.7	21.6	21.2	19.0
	3	14.1	14.5	10.2	21.5	16.4	25.0	17.4
	4	18.8	26.1	25.4	18.4	21.6	23.1	21.4
	5	58.8	37.7	16.9	15.2	23.1	15.4	26.8
평균점수	4.24	3.69	2.89	2.83	3.11	3.01	3.25	86.14(0.0000)

*: 응답내용 1. 거의 안한다.

2. 한달에 한번정도

3. 일주일에 한번정도

4. 일주일에 두세번

5. 거의 매일한다.

*: 가족주기별로 응답 1~5의 빈도백분율.

*: 전조사대상자의 응답 1~5에 대한 빈도백분율.

** : 응답내용1에 1점, 2에 2점, 3에 3점, 4에 4점, 5에 5점을 주어 얻은 점수를 가족주기별로 평균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화빈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가족주기 3단계 아동기가족에서 가장 빈번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녀문제(C)가 으뜸이고 그 다음이 부인의 하루생활(W)· 남편의 하루생활(H)· 경제문제(E)· 일상의 감정교환(FM) 순으로 2단계와 대화내용은 같으나 순위가 달라져 1, 2단계의 부부중심대화에서 자녀중심대화로 3단계에서부터 바뀔을 알 수 있다.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역시 오락 및 여가활동· 정치문제· 생활철학이었다.

가족주기 4단계 중· 고등학교 가족에서도 자녀문제(C)· 부인의 하루생활(W)· 남편의 하루생활(H)· 경제문제(E)· 일상의 감정교환(EM) 순으로 나타나 앞 단계와 다르지 않았으며 특히 자녀문제 대화빈도가 전(全) 가족단계 중 제일 높았다. 낮은 빈도의 대화는 역시 생활철학(PH)· 종교문제(R)· 오락 및 여가활동(L)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주기 5단계 자녀독립기에서 가장 부부대화 빈도가 높은 것은 자녀문제(C)· 경제문제(E)· 남편의 하루생활(H)· 부인의 하루생활(W)· 일상의 감정교환(EM)으로 앞단계와 같았으며 전체적으로 대화빈도가 감소되고 있다.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는 종류도 역시 오락 및 여가활동(L)· 종교문제(R)이며 특이한 것은 애정 및 성문제가 대단히 낮은 대화유형에 속하였으며, 특히 전 가족주기 단계에서 제일 낮은 점과 생활철학(PH)은 앞 단계에 비해 빈도낮은 대화에 속하지 않는 점이다.

가족주기 6단계 탈부모기에서는 자녀문제· 남편의 하루생활· 부인의 하루생활· 경제문제가 빈도가 높은 대화유형으로 나타나 앞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집안행사(F)가 비로소 주요대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 가족주기 단계 중 제일 높았다. 작게 대화를 나누는 생활내용은 역시 종교문제· 애정 및 성관계· 생활철학으로 나타나 5단계와 같았다.

IV. 결론 및 논의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 상태 및 가

족발달단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가지고 행해진 연구에서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을 고찰한 결과,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은 채널선택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으며, 채널방향성은 부부모두 얘기를 잘하는 상호방향성이었고, 비교적 개방형에 속하는 대화유형을 나타내어 부부는 상호의 생활경험에 관심이 크며 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잘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해도는 양호한 편이었고, 가장 빈도가 높은 대화내용은 자녀문제와 부부의 하루생활이었다.

2) 연구문제 2를 고찰한 결과,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은 가족주기단계에 따라 대화유형·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해도는 차이를 나타내어, 대화유형에서 가족주기 1단계(신혼기가족)와 2단계(미취학아동기가족)가 가장 개방적이며 5단계(자녀독립기)가 가장 폐쇄적이었으며, 비언어적 매체이해도는 제2단계(미취학아동기가족)가 제일 높았으며 제1단계(신혼기가족)가 제일 낮았다.

3) 연구문제 3을 고찰한 결과, 가정에서의 대화종류와 빈도는 가족주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문제· 부인의 하루생활· 남편의 하루생활· 오락 및 여가활동· 애정 및 성문제· 일상의 감정교환 등 가족주기단계에 따라 대화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문제는 2단계에서 6단계(탈부모기)까지 높았으며, 부부의 하루생활내용과 일상의 감정교환빈도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다 높았고, 애정 및 성문제는 1단계에서 제일 높았으나 점차 낮아지다가 5·6단계에서는 가장 빈도가 낮은 대화에 속했다. 그리고 가족주기 3단계(학동기가족)부터 부부중심대화에서 자녀중심대화내용으로 바뀐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부부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임이 분명한데 부부 상호교환형이 42.4%로(물론 남편송신자형· 부인 송신자형· 무대화형 유형보다는 높지만) 도시부부

의 커뮤니케이션 상호관계는 더욱 증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편의 보다 적극적인 부부 커뮤니케이션 개입행동이 요구된다.

2) 가족주기단계 별로 나타난 부부커뮤니케이션 전반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제3단계인 학동기가족의 다른 단계에 비해 낮은 커뮤니케이션 점수이다. 제3단계의 부부는 대화를 적게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질적수준도 낮았으며 대화유형도 다른 단계(1, 2, 4, 6단계)보다 덜 개방적이었다. 이는 제3단계의 낮은 결혼생활적응의 연구와도 일치되며(이기숙 1984, 612) 가장 활발한 가족단계인 제3단계에서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남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요망된다.

3) 부부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자녀문제에 높아치중되어 있고, 특히 생활철학·오락 및 여가활동·애정과 성문제 등에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보다 다양한 대화내용을 가지는 부부생활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끝으로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부부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을 위해 몇가지 제언코저 한다.

1) 보다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의 부부커뮤니케이션 성립을 위해 특히 남편측의 부부공동생활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부커뮤니케이션에 공헌도가 높은 주부들을 위해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보다 효과적이고 정선된 커뮤니케이션기술들이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한국가정의 부부가 자녀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화에서 더욱 발전하여 부부자신들의 가치관·철학·새로운 적응양식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대화로 부부일체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녀문제가 부부생활에 목적이 아닌 수단적 매체로 개입케 되고 이는 나아가 부부중심의 가정생활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숙: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논문집(자연.예능학편) 10, 1982
- 2) 김은숙: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3) 김쟁산: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4) 박경자: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 행복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5) 송말희·이정우: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이 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33-44, 1986
- 6) 송성자: 한국의 가족치료 연구-의사소통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5
- 7) 이근후·이동원: 도시가족내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2: 277-306, 1973
- 8)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5-58, 1984
- 9) 이기숙: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응의 변화, 부산여대논문집 17: 601-617, 1984
- 10) 이정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연구-일치도와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1) 조혜정: 부부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2) 牛島義友: 家族關係の心理 東京: 金子書房,

- 245-248, 1974, In 박경자(1981, 22)
- 13) Bienvenu MJ :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9 : 29, 1970
 - 14) Chilman CS : *Families in poverty in the early 1970's : rates, associated factors, some impl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JMF)* 37 : 57-68, 1975
 - 15) Duvall EM and Miller BC :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 Harper & Row*, 26, 1985
 - 16) Freimuth VS : *The effects on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 : 289-298, 1976
 - 17) Gibb JR : *Defensive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11 : 141-148, 1961. In Hawkins (1980, 593)
 - 18) Glick ID & Kessler DR : *Marital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Gryne and Stratton*, 92, 1980. In 송성자(1985, 9)
 - 19) Gurman AS & Kniskern DP :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314, 1981. In 송성자(1985, 29)
 - 20) Hawkins JC, Weisberg C, Ray DE :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MF* 39 : 479-490, 1977
 - 21) Hawkins JL, Weisberg C, Ray DE :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MF* 42 : 585-593, 1980
 - 22) Honeycutt JM, Wilson C, Parker C : *Effect of sex and degree of happiness on perceived styles of communicating in and ou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JMF* 44 : 395-404, 1982
 - 23) Kimmel D & F. Van Der Veen : *Factors of marital adjustment in Lock's marital adjustment test. JMF* 36 : 57-63, 1974
 - 24) Klemmer RH :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New York : Harper & Row*, 1970. In 이근후(1973, 277-306)
 - 25) Komarovsky M : *Blue-collar marriage. New York : Randon House*, 198, 1964. In Hawkins (1980, 585)
 - 26) Locke H : *Predicting adjustment in marriage. New York : Henry Holt*, 1951. In 이정순(1982, 24)
 - 27) Markman HJ : *Application of a behavioral model of marriage in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uples planning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 : 743-749, 1979. In Witkin(1983, 661)
 - 28) Mukherjee BN : *The role of husband-wife communication in family planning. JMF* 37 : 655-667, 1975
 - 29) Navran L :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ily Process* 6 : 173-184, 1967
 - 30) Norton R : *A foundation of a communicator style constru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 99-112, 1978, In Honeycutt(1982, 395)
 - 31) Olson DH, Fournier DG & Durckman JM : *ENRICH(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Happiness). Unpublished paper,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Minnesota*, 1982
 - 32) Powers WG, Hutchinson K : *The measuremen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in the marriage relationship. JMF* 41 : 89-94, 1979
 - 33) Thomas EJ :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 The Pree Press*, 1, 1977, In 송정자(1985, 2)
 - 34) Witkin SL, Edleson JL, Rose SD, Hall JA : *Grouping training in marital communication : a comparative study. JMF* 45 : 661-669, 1983

